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 유입의 효과성분석

-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Influx of Youth Population o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Focused on the Case of Chungbuk Province as an Innovative City -

임 태 경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단독저자)

Abstract

Taekyoung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influx of people aged 20-39 year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was based upon the construction of panel data for a total of 11 years between 2008 and 2018 focused on the case of Chungbuk Province as an Innovative City. City-level characteristics including influx of the youth population and industry circumstances are shown to be empirically important factors of variation in regional economic growth. Especially,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people aged 20-39 years moved from metropolitan area to Innovative City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led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Neither has any study provided an empirical study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flow of the youth on regional economic growth even though the inflow of the youth can mention as a key factor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can be contributed to suggests meaningful policy directions vis-a-vis population imbalance and immigration of people aged 20-39 years.

Keywords: Youth Population and Migration, Regional Economy Growth, Innovative City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행정기관 등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이끌고 이는 다시 지방의 인구 공동화

와 지방경제의 위축 등과 같은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감소를 발생시켰다(이호준 외, 201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침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지역불균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건설 또는 세종시의 개발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백경훈, 전희정, 2019; 이호준·이수기·박선주, 2018), 동시에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사회의 성장기반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차원의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이소영, 2021).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수도권에 살고있는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청년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혁신도시로 유입된 청년인구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연구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인구분산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증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청년인구 분산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중에서도 청년의 전출·전입지에 관련된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의 유입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정책이 활성화 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년인구의 유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갖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으로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청년인구의 유입의 중요성

현재 국·내외적으로 청년(youth)을 정의하는 하나의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공공기관 및 각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시행중인 청년사업에서 20세에서 39세까지로의 인구를 청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년인구 유입의 개념은 20~39세까지의 인구집

단이 지역으로 전입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조성철 외, 2019).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년인적자본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청년인구의 유입은 지역의 생산 및 소비활동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역내에서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이 증대되어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청년인구의 증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이 지역내로 입지하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청년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Domar, 1946; Harrod, 1939). 또한 Simon(1981)는 청년인구증가로 늘어나는 수요만큼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므로 천연자원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uznets(1960)는 청년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인구가 증가한만큼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관련하여 사호석·우한성(2021)은 지식기반경제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청년인력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려 하는 것은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Haynes and Langley(2014)는 지역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chultz(1961)는 교육받은 청년인적자본의 축적은 개인소득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년인구의 유입은 지역 커뮤니티의 인프라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은 활력을 되찾고, 교육 및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재 중심의 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McNulty et al., 1984). 또한 Florida는 창의적인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계층의 인구가 유입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Florida, 2005).

셋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년인구의 유입은 지역의 슬럼화와 범죄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빈집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빈집증대 현상은 지역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쇠퇴지역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다면 지역의 노후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김은란·강미나, 2019).

2. 청년인구 유입에 관한 연구 경향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 및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소멸, 지역경제 악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에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호석·우한성(2021)은 앞으로 지식기반경제로 구조가 개편됨에 따라서 청년인구의 유입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년 인력을 산업단지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단지별 청년의 분포와 새로운 청년의 유인력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메니티 조성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성장의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유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유입되는데 동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지만, 실제 청년인구의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박종훈·이경재·이성우(2018)는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을 근거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산업간 다양성 지수와 청년층의 고용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산업 간 다양성 지수와 청년고용 간의 부(-)의 관계가 나타남을 제시하면서 도심지역에서는 특정산업보다는 다양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청년고용증진에 효과적이며, 농촌지역에서는 특정산업을 특화 육성시키는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입은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탱하는 핵심요소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지만 실제 청년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시군별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연호·김광민(2015)은 충북의 인구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 고령화지수 증가율이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관련 인구구조와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전문직 종사자와 대졸자 수의 비중이 지역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내 우수 인력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성장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지만 충북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최유진(2017) 또한 도시어메니티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젊은이의 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젊은이의 인구를 전체 인구대비 0~15세 인구비율로 측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변수는 시군구 별 종사자수, 인구증가율, 국민연금 징수 비율로 측정하여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있다. 이 논문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젊은 인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젊은인구의 정의를 0~15세 인구비율로 측정하고 있어 15~39세 사이의 청년인구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배제하고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허동숙(2014)은 지역혁신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연구인력(고급인력) 유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신과 같은 무형자산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고급인력의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고급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립 및 유치를 통해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허동숙, 2014).

지금까지의 청년인구 유입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년인구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실정에서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핵심고리로 청년인구 유입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으로 유입된 인적자본 중에서도 청년인구 유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의 전출·전입지에 관련된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 유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청년인구 유입에 관한 연구경향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내용
사호석·우한성(2021)	46개 산업단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선형표준화모형적용	산업단지별 기존의 청년의 분포와 새로운 청년의 유인력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박종훈·이경재·이성우 (2018)	2010~2015년 기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다층로짓모형적용	지역산업 다양성 지수와 청년의 고용 간의 인과관계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함
이연호·김광민 (2015)	1993~2012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Bloom모형을 적용	충북지역의 인구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지역내 우수 인력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최유진 (2017)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간회귀모형을 적용	젊은이의 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젊은 인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허동숙 (2014)	2007-2012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모형을 적용	지역의 연구인력(혁신인력)의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Ⅲ. 분석의 방법

1. 분석방법 및 연구의 가설

1) 분석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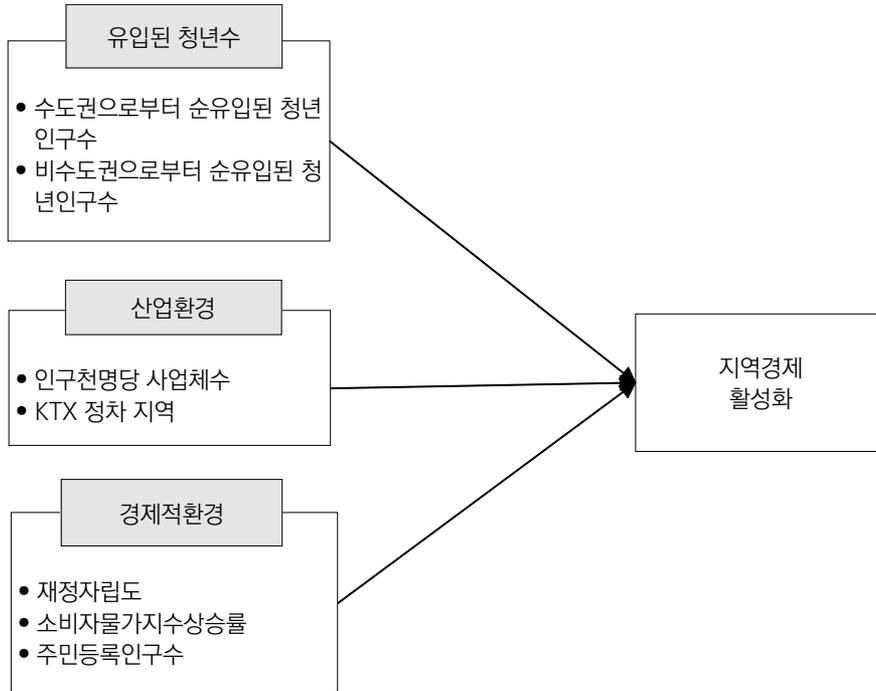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11개의 기초자치단체이다¹⁾.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과 지방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은 비수도권지역에 새로운 인구유입을 만들어냈고(이상립,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 총 11년간의 패널 데이터 자료를 구축하여 총 121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충북지역에 유입된 청년인적자원과 지역경제활성화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를 구분하여 각 지역에 유입된 청년인적자원의 효과성을 추정하였으며, 청년의 전출·전입지에 관련된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의 유입 효과성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로 유입된 청년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으로 유입된 청년과 비혁신도시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대상을 설정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유입된 청년의 수> <산업환경> <경제적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이론적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입된 청년의 수>는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과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을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성을 추정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건립으로 인해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혁

1)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청원군은 분석의 단위에서 제외되었다.

신도시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로 유입된 청년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로 각각 유입된 청년인구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usman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와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Hausman 검정 결과인 p값이 0.01보다 작았음을 확인하고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였다(임태경, 20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에 관련된 회귀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D_{st} = \beta_0 + \beta_1 YoungAdult1_{st} + \beta_2 YoungAdult2_{st} + \beta_3 X_{st} + \beta_4 T + \beta_5 S + e_{st}$$

위의 추정식에서 보여지는 ED_{st} 는 종속변수로서 각각의 지역(s)과 시간(t)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타낸다. 또한 $YoungAdult1_{st}$ 와 $YoungAdult2_{st}$ 는 본 연구의 주요 핵심 독립변수로서 청년인적자원 유입의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YoungAdult1_{st}$ 는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를 의미하며 $YoungAdult2_{st}$ 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를 뜻한다. 그리고 X_{st} 는 통제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하며 통제변수는 독립변수 이외에, 산업환경 경제적환경에 관련된 변수로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산업환경에 관련된 변수는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KTX 정차지역의 존재유무로 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동시에 경제적 환경에 관련된 변수는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주민등록인구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T 는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e 는 오차항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도시 또는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간의 관계를 각각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형을 세분화하여 관계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1] [모형2]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성화 되기 이전 시점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또는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살펴봤으며, [모형3] [모형4]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준공된 이후 시점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또는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끝으로 [모형5] [모형6]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년의 분석기간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혹은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의 선정근거

본 논문에서의 종속변수는 지역소득에 관한 지표로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수치를 사용하였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가 더 성장하고 있음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생산성' 또는 '소득'에 관한 지표이며(최유진, 2015) 특히 소득에 관한 지표로서 지역내총생산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변수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태경, 2019). 예를 들어, 이연호·김광민(2015)은 인구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임태경(2019)은 준실험설계를 통해 혁신도시 개발정책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값을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로서 사용하였다. 정혜진(2016) 역시

16개의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연도별 지역소득 값을 사용했으며(정혜진, 2016), 김일태·최지혜(2014) 또한 사회적 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지역내총생산 수치는 지역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측정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역시 지역내총생산 수치를 지역경제 활성화 변수로 활용하되 2016년 기준가격으로 계산되어 적용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청년인구의 순 유입량(전입-전출)을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청년 인적자원의 유입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McClelland, 1966; Miller, 2009). 구체적으로 Domar(1946)는 청년인구의 증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이 지역내로 입지하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어 물질 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Florida(2005)는 창조적인 계급의 지속적인 유입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으로 창조적인 계층의 인구가 유입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lorida는 단순한 인구성장률의 증가보다는 창조성을 더 발휘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계층의 유입이 지역경제 성장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Florida, 2002).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임경수 외(2018)와 임태경(2021)은 우수한 청년 인적자본의 지역유입이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임경수, 2018; 임태경,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으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39세 사이의 인구수를 청년의 조작적정의로 사용하였다. 현재 국내 외적으로 청년을 정의하는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충청북도 및 경기도의 청년 관련 3개의 조례에 따르면 청년을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의 인구를 뜻하는 20~39세 사이의 인구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동시에 청년인구의 순유입량은 전입된 청년인구수와 전출한 청년 인구수의 차이값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 인구수와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 인구수로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 간의 청년인구이동, 수도권지역에서 비혁신도시 간의 청년인구이동, 비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 간의 청년인구이동, 비수도권지역에서 비혁신도시 간의 청년인구이동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여 청년인구 이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동시

에 청년의 전입 전출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 통제변수의 선정근거

본 논문에서는 지역들 사이에 다른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독립변수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환경 및 경제적환경에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서 적용하였다. 첫 번째 통제변수로서 산업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예컨대 문동진·홍준현(2015)은 지역내에 사업체의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최유진(2017) 또한 사업체 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다양성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고, 해당변수는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로 측정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로서 고속철도(KTX) 인프라 환경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속철도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이동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조재욱·우명제, 2016; 박미숙·김용구, 2016; 홍성조·김용진, 2017)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되었다. 해당변수는 고속철도(KTX) 정차역이 있는 지역은 '1'로, 그 외 지역은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환경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주민등록 인구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반영하여(Tiebout, 1956)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물가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인구수는 지역의 집적 경제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경쟁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로서,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의 통제변수로서 포함되었고, 해당변수는 주민등록인구수(단위: 명)로 측정되었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조작화 방법과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출처
종속변수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내총생산(2016년도 기준가격적용)(단위:천만원)	지역별 통계연보
독립변수	유입된 청년 인적자원	•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수 •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수	지역별 통계연보
통제변수	산업환경	• 인구천명당 산업체수 • KTX 정차역 존재 유무	경제활동 인구조사
	경제적환경	• 재정자립도 •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 주민등록인구수(명)	지역별 통계연보

※데이터 수집 기간은 총 11년(2008~2018)임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다음의 〈표 3〉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결과값이다. 연구에서 활용된 기초자치단체 수는 총 11개이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년의 연구기간과 함께 121개의 표본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역경제활성화(GRDP) 변수의 평균은 36408.39(단위: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 충북지역으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의 평균은 -1841,79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평균 청년인구수 1555.149명과 수도권으로 유출된 평균 청년인구수 3396.942의 차이로 도출된 결과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충북지역으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의 평균은 6292.421명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평균 청년인구수는 6337.421명, 비수도권으로 유출된 평균 청년인구수는 -45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경제활성화(단위:천만원)	121	7510.08	282058.1	36405.39	49819.13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된 청년수	121	203	8806	-1841.793	2021.956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청년수	121	482	18568	1555.149	4523.913
수도권으로부터 유출된 청년수	121	-10475	-195	3396.942	2520.001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된 청년수	121	518	48739	6292.421	11702.73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청년수	121	655	47224	6337.421	11472.24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출된 청년수	121	-2516	2503	-45	515.7535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121	59.249	98.390	74.714	88.600
KTX 정차역	121	0	1	0.0909	0.288675
재정자립도	121	9.8	48.1	20.84298	8.310744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121	-0.2	5.1	2.281818	1.494824
주민등록인구수	121	30483	672904	127067.1	175937

뿐만 아니라 인구천명당 사업체수의 평균값은 인구천명당 사업체수의 평균값은 74개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 KTX 정차역이 존재하는 지역의 평균값은 0.09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평균값은 20.84,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의 평균값은 2.28, 주민등록 인구수의 평균값은 127067.1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값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부록 1]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유입된 청년수와 KTX 정차역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고, 이는 KTX 정차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청년인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상관성이 높게 나왔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 지수와 주민등록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고, 이는 인적자원이 많은 지역이 자치재원 규모 비중이 높을 가능성으로 인해 상관성이 높게 나왔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의 대부분의 변수는 0.5 이하의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Wooldridge, 2003).

3. 패널회귀분석 검정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지역과 비혁신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청년인구의 유입효과를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사후추정검정(post-estimation)으로서의 모형설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amsey RESET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누락변수에 의한 모형설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Gujarati & Porter, 1999). 다음의 <표 4>은 혁신도시지역과 비혁신도시 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성화 되기 이전(2008-2011)·이후(2012-2018) 시점을 구분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값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모형1]과 [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혁신도시로서 개발이 본격화 되기 이전 시점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는 유의수준 10%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혁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시점의 분석결과를 [모형3] [모형4]를 통해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반면에 2012년 이후에 수도권 지역에서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다시말해, 혁신도시 사업이 본격화 되기 이전시점(2008-2011)과 이후시점(2012-2018)에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인구로 인해 발생된 지역경제 활성화 순증분에 해당되는 검정통계량이 0.278에서 13.394로 증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지역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발생시켰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2012-2018년에 비수도권에서 비혁신도시 지역으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는 유의수준 1%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도시가 건설된 이후에는 비혁신도시보다 혁신도시로 유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이상림, 20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년간의 분석 기간을 대상으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를 구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유입된 청년인구의 효과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청년의 순유입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값을 나타냈다. 반면에, 수도권지역에서 비혁신도시로 이주한 청년의 순유입 효과와 비수도권지역에서 비혁신도시로 이주한 청년의 순유입 효과는 모두 지역경제활성화에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음(-)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실시된 혁신도시 조성 정책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지역내 청년인구 유입의 불균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로서(2007, 김홍배)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내 불균형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로서 측정된 사업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는 혁신도시 지역

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모형1] [모형3] [모형5]에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체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체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KTX 정차역의 존재는 비핵신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모형3]과 [모형6]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고속철도역의 개통 및 존재는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토의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조재욱·우명제(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주민등록인구수로 측정된 지역의 인구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는 핵신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모형1][모형3]과 [모형5]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핵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한 [모형4] [모형6]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2~2018 시점에 비핵신도시 지역에서는 인구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영향력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패널회귀분석 검정 결과: 2008-2011와 2012-2018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변수		[모형1] 핵신도시	[모형2] 비핵신도시	[모형3] 핵신도시	[모형3] 비핵신도시
		2008-2011		2012-2018	
청년 인구 유입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	0.278 (15.318)	4.554* (2.454)	13.394* (10.352)	-30.323*** (5.120)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	13.081 (6.878)	-0.847 (2.686)	-2.778 (4.424)	-19.683*** (3.908)
산업 환경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1.442*** (1.376)	0.061 (0.125)	0.880* (0.467)	0.214 (0.232)
	KTX 정차역	-	-1105.895 (11380.469)	-	1.35e+05*** (21265.166)
경제적 환경	재정자립도	548.936 (611.251)	332.158 (332.158)	490.606 (623.544)	-2313.725 (788.885)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721.586 (2170.614)	-604.296 (823.120)	2810.138 (2791.737)	-1277.714 (2003.755)
	주민등록인구수	0.374* (0.322)	0.258*** (0.046)	0.711*** (0.201)	-0.232** (0.089)
Year-Fixed		Yes	Yes	Yes	Yes
Constant		-1.10e+05 (94658.081)	-5555.098 (7402.984)	-8.36e+04** (28721.377)	22925.263 (16022.379)
R^2		0.98	0.99	0.98	0.98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 핵신도시는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핵신도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을 포함하고 있음

※ 수도권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뜻하며, 그 밖의 지역은 비수도권지역으로 정의함

〈표 5〉 패널회귀분석 검정 결과: 2008-2018를 중심으로

변수		[모형5] 혁신도시	[모형6] 비혁신도시
청년 인구 유입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	13.515* (6.999)	-18.450*** (4.295)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청년	-0.133 (3.067)	-23.170*** (3.263)
산업 환경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1.230*** (0.331)	0.209 (0.205)
	KTX 정차역	-	1.11e+05*** (18922.914)
경제적 환경	재정자립도	22.523 (325.836)	-2029.728 (616.071)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3599.691** (1523.093)	-6474.397 (2269.043)
	주민등록인구수	0724*** (0.150)	-0.048*** (0.075)
Year-Fixed		Yes	Yes
Constant		-1.03e+05*** (22343.609)	18633.839 (14585.567)
R^2		0.97	0.97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 혁신도시는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혁신도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을 포함하고 있음

※ 수도권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뜻하며, 그 밖의 지역은 비수도권지역으로 정의함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청년인구 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특히 혁신도시의 건립으로 인해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들이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준공된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목적은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 있는데(이소영, 2020), 청년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청년인구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혁신도시 조성 정책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지역내 청년인구 유입의 불균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 지역경제활성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인 반면, 수도권 지역 혹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인구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가 건설된 이후에 비혁신도시보다 혁신도시로의 유입을 원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일 지라도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청년인구 순유입에 따른 불균형 효과를 발생시켰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환경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로서,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역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지역별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도시와 연계한 비혁신도시(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수도권의 집중완화 및 지방침체 해소를 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동시에 혁신도시(신도시)의 창출과 그 흡입력으로 인해 기존의 비혁신도시(구도심)의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기존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및 쇼핑의 기능을 통한 도시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비혁신도시(구도심) 지역은 역사성, 문화성, 지역관광에 관련된 정체성을 확립시켜 두지역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의 순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무작정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할 시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아닌 정착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기획하여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청년인구 유입이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청년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주거, 교통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시책과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안에 정착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신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신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존의 산업지역이 지속적으로 산업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노후 산업지역의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민간부분에서 이뤄지는 투자에 대한 지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출된 지방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출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지적할만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출된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출효과와 산업환경 및 도시의 인프라 환경의 다면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된 모든 혁신도시를 포괄한 표본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지정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함께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일태·최지혜. (2017). 지방정부 부채와 지역경제성장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38: 79-91.
- 김재환. (2017).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김현우·이두현·임희선. (2017). 도시 어메니티가 창의인력 거주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39-49.
- 박중훈·이경재·이성우. (2018). 지역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4): 133-159.
- 박미숙·김용구. (2016). 고속철도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응용통계연구」, 29(1): 13-25.

- 사호석·우한성. (2021).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 특성 분석: 청년유인력 종합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2): 181-200.
- 심재희. (200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경제성장효과 분석, 「국토계획」, 38(7):201-209.
- 윤지웅·김태영·김주경. (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135-157.
- 이연호·김광민. (2015). 인구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충북의 경우. 「산업경제연구」, 28(4): 1493-1513.
- 이장욱. (2020). 지방재정지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7(2): 1-23.
- 이정화·문상호. (2014).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성향점수매칭 (PSM) 이중차이 (DID) 를 활용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3): 411-442.
- 이현국·강영환. (2019). 어메니티와 청년인구변화: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3): 195-215.
- 이희연. (2013). 인구감소시대가 오고 있다. 지역별 인구전망과 주요쟁점. 「국토」, 378: 6-15
- 임경수·라은종·이희수. (2018). 이론기반평가를 활용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13(1): 47-72.
- 임태경. (2019). 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2): 81-108.
- 임태경. (2021). 시차분석을 통한 지역의 첨단기술산업 특화수준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지방행정연구」, 35(2): 189-215.
- 정혜진. (2016). 창업활동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 연구논총」, 18(1): 35-62.
- 조임곤. (2013). 사회복지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연구」, 13(2): 79-93.
- 조재욱·우명제. (2014).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KTX 경부선·경전선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9(5): 263-278.
- 최유진. (2015). 환경정책과 지역경제 성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환경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1-22.
- 최유진. (2017). 도시어메니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4): 299-324.
- 허동숙. (2014). 지역혁신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6): 884-896.
- 호유정. (2008).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 소득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3(6): 111-120.
- 홍근석. (2013).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_0 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2): 103-130.

- 홍성조·김용건. (2017).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강원도 지역경제 변화 예측. 「도시행정학보」, 30(3): 47-72.
- Atkinson, A. B. (1995). The Welfare State and Economic Performance. *National Tax Journal*, 48: 171-198.
- Barro, R.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407-443.
- Domar, E. D. (1946). Capital expansion, rate of growth, and employment.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37-147.
- Faggian, A. & McCann, P. (2009). Human capital, graduate migration and innovation in British reg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3(2): 317-333.
- Harrod, R. F. (1939). Price and cost in entrepreneurs' policy. *Oxford Economic Papers*, (2), 1-11.
- Haynes, C. & Langley, V. (2014). *Magnet Cities: Decline Fightback Victory*, KPMG.
- Hicks, N. L. (1987).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In Economics of Education (pp. 101-107)*, Pergamon.
- Judd, C. M. & Kenny, D. A. (1981). Process analysis: Estimating mediation in treatment evaluations. *Evaluation review*, 5(5): 602-619.
- Kuznets, S. (1960). *Population change and aggregate output.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p. 324-351)*. Columbia University Press.
- Lucas Jr,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Miller, M. M., Gibson, L. J. & Wright, N. G. (1991). Location quotient: A basic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alysis. *Economic Development Review*, 9(2): 65.
- Muro, M. & Perry, A. (2020). *Regional Divergence is More Than An Economic Dilemma: It's a Civil Rights Issue*. Brookings, Washington, D.C.
- Schwartz, A. (1973). Interpreting the effect of distance o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5): 1153-1169.
- Simon, J. L. & Bartlett, A. A. (1985). *The Ultimate Resour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aiger, D. O. & Stock, J. H. (1994).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 with weak instruments*.
- Tiebout, C. M. (1956). Export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2): 160-164.
- Wooldridge, J. M. (2003). Cluster-Sample Methods in Applied Econometr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133-139.

접수일(2021년 10월 15일)

수정일(2021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2021년 12월 08일)

〈부록 1〉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1) 수도권에서순유입된청년	1.000						
(2) 비수도권에서순유입된청년	-0.3683*	1.000					
(3)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0.1995*	-0.1162	1.000				
(4) KTX 정차역	-0.6126*	0.4727*	-0.2812*	1.000			
(5) 재정자립도	-0.4684*	0.4219*	0.0155	0.4636*	1.000		
(6)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0.0010	0.0949	-0.4418*	-0.0000	0.0097	1.000	
(7) 주민등록인구수	-0.4852	0.4244	-0.2179	0.4550	0.6872	-0.0083	1.000

-제시된 값은 Pearson의 상관계수임

-*는 10%, **는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국문초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 유입의 효과성분석: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로 유입된 청년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 까지 총 11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혁신도시 지역과 비혁신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청년인구의 순유입효과를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준공된 이후 시점에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혁신도시 조성 정책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지역내 청년인구 유입의 불균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이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핵심고리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청년인구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지며, 앞으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청년인구 유입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청년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 혁신도시

임태경(任泰勳: 단독저자):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Ph.D. in Urban Studies and Public Affairs, 2017)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Multilevel Governmental Efforts for Energy Efficiency: Policy Adop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며,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지역경제, 재정분권 및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The Impa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Innovation in Clean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Evidence from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Energy Policy, 2021)” 등이 있다(Email: tklim@kmu.ac.kr).